

마가와 바울의 눈으로 보는 추방, 해방과 분단 70년

양재훈*

들어가는 말

2015년은 제 2차 세계 대전이 종결된 지 70년이자 우리 민족이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을 맞이한 지 70년째 되는 해이다. 2차 대전에 연루되었던 세계 각국은 여러 가지 모양새로 야만적이었던 슬픈 역사를 되새기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광복 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70주년을 준비하고 있다.¹⁾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 해방은 기쁨임과 동시에 또 다른 아픔과 고통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아직까지도 남북한의 무력적인 대치와 적대감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따라서 기쁨이나 반성으로 70년 전을 회고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통일이라는 또 하나의 큰 과제를 올해 70주년의 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남북한의 공동된 미래지향적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슬픈 과거로 인해 새겨진 상흔, 아직 온전히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보듬기 위한 회고(回顧) 작업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7월 5일, 일본은 많은 논란 끝에 결국 나가사키 인근의 군함도(하시마, 端島)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시켰다. 한국 정부가

* 협성대학교, 신약학

1) <http://www.korea815.go.kr>

그 등재를 반대했던 중요한 이유는 그 섬이 일본제국주의의 한인 강제 징용이라는 비인도적인 만행에 대한 분명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그 과거를 외면하고 감추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일본군 ‘위안부’(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문제나 한반도 안에서의 강제징용과 약탈 행위 등, 아직 화해되지 못한 과거가 일본과 한국 사이에 놓여있고, 이것은 과거에 대한 분명한 반성적 인식과 화해가 없이는 함께 미래를 논할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

이 논문은 해방과 분단 70년을 마가복음과 로마서의 눈을 통해 돌아보면서 한국의 미래를 생각한다. 특히 이 글은 과거에 자의, 혹은 타의로 러시아로 이주(당)했던 한인들 즉, 소위 ‘까레이스카’²⁾라고 알려진 ‘고려인’들과 ‘사할린 한인’들의 과거를 신약성서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과거와 화해하고 미래를 모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우선 블라디보스톡 등 연해주 지역 이주민의 과거와 사할린 한인들의 과거를 소개한 후, 비슷한 상황적 유비(類比)를 보여주는 마가복음과 로마서를 조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오늘날 한국이 깊숙한 곳에 타부와 같이 숨겨두었던 과거의 모습을 반성하고 미래를 생각해 볼 것이다.

2) 흔히 러시아의 한민족 동포를 가리켜 ‘까레이스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의라는 형용사로서 어법에 맞지 않고, 한민족 사람을 가리킬 때는 ‘까레에스’라고 불러야 한다. 전신욱, “연해주 한인의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와 정착 그리고 사회·경제적 현황,” 「통일문제연구」 47 (2007), 207-246, 210. 구소련 시기 한인 동포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소련동포’, ‘고려사람’, ‘재소 한국인’ 등으로 불렀다(임채완,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의 민족정체성 연구: 연해주로 이주해 온 고려인의 정체성 연구,” 「통일문제연구」 38 (2002), 175-210, 176). 이 논문에서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한민족 동포를 통틀어 ‘고려인’이라고 부르고 사할린 지역의 한민족 동포를 가리켜 ‘사할린 한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1. 슬픈 옛날

1.1. 연해주 고려인의 상처들

러시아에서의 한인의 역사는 우선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조선시대 말에 연해주 지역으로 이민을 갔던 함경도 출신의 조선인들의 것으로서, 이들은 소위 ‘까레이스카’라고 불리게 되는 ‘고려인’이고, 둘째는 일제 강점기 후반에 사할린으로 강제징용을 당했던 한반도 이남 지방 출신의 ‘사할린 한인’들의 역사이다. 시대적으로 보면 러시아 이주는 1차적으로는 18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863년에 조선 함경도 지역에 거주하던 조선인 농민들 중 13가구가 베이징 조약(1860)을 통해 청나라에서 제정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된 연해주 크라스키노 지역의 지신허(Tizinkhe)에 정착하는 것으로써 러시아에서의 고려인들의 역사는 시작되었다.³⁾

1869년에 조선에서는 대흉년이 발생하여 농민들의 삶이 피폐해졌고, 생존을 위해 조선인들의 대규모 엑소더스(exodus)는 시작되었다.⁴⁾ 이때에 약 6,500명의 조선국 농민들이 탈조선자(脫朝鮮者)에 대한 조선 당국의 처벌 위협에도 불구하고 연해주 지역으로 탈출했다. 특히 1880

3) 한인들의 러시아 이주에 대한 역사를 간략히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소개한 것을 보려면, 반병률, “한국인의 러시아 이주사: 연해주로의 유랑과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 『한국사 시민강좌』 28:2 (2001), 65-89를 보라.

4) 엑소더스가 더 좋은 곳을 찾아서 힘든 곳을 탈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함경도 출신의 고려인들은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정든 고향을 등져야만 했다는 슬픈 현실을 담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이들의 엑소더스는 추방(exile)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추방의 개념은 타의에 의해 원치 않는 곳으로 이주되는 개념을 지닌다. 어려운 현실을 피해 탈출/해방(exodus) 했다는 것을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고향에 남아있고 싶었으나 어려운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치 않게 이주(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탈출/해방(exodus)과 추방(exile)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왕대일, “해방과 추방, 구약 신학적 검토,” 『Canon&Culture』 9:1 (2015), 5-34를 보라.

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동안 계속해서 조선인들의 연해주로의 이주가 지속된 것은 불모지였던 이 지역을 개척할 노동력이 아쉬웠던 제정러시아 당국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려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⁵⁾ 이 당시 이주민 중 약 90%가 농민이었다는 사실과 더불어⁶⁾ 이민촉진법에 따라서 그들에게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고 세금 면제와 가구당 100데샤친(=33만평, 1인당 15데샤친)의 거대한 토지를 분배해준 이민장려정책⁷⁾ 연해주 지역 개척에 러시아가 조선인들의 이탈을 좋은 기회로 이용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러시아 당국의 연해주 이민 장려 정책 덕분에 1863년 13가구였던 고려인이 1882년에는 약 1만 명으로 증가하였다.⁸⁾ 1884년 6월에 정식으로 체결된 조러수호통상조약 이후, 러시아에 이주한 조선인들 즉, 고려인에 대한 정비가 시작되었다. 러시아 당국은 계속해서 연해주 지역 개척을 위해 조선인 이민을 장려하였고, 이와 동시에 이주 조선인들의 신분을 분류하기 시작하였다. 1891년 러시아는 이주 조선인을 세 단계로 구분하여, 러시아 국적을 부여받을 1884년 이전 이주자, 2년간 신분을 유예하는 1884년 이후 입국자, 그리고 일시체류자로서 외국인 등 세 부류로 차별하여 나누었다.⁹⁾ 그리고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주 조선인들에게 각종 혜택을 베풀었다.¹⁰⁾ 그리고 이러한 호의적 태도는 대한제국(1897-1910)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1905년까지 이어

5) 반병률, “한국인의 러시아 이주사,” 68-69.

6) 이채문,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이주민의 직업에 대한 연구: 비농업직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3:2 (2000), 39-77.

7) 반병률, “한국인의 러시아 이주사,” 69.

8) 이주 초기부터 1934년에 이르는 한인 이주민들의 인구 변화 도표는 이채문, “러시아 극동지역,” 49-52를 보라.

9) 반병률, “러시아 한인(고려인) 사회와 정체성의 변화,” 「한국사연구」 140 (2008), 103-104.

10) 러시아 이주 조선인들은 러시아로 귀화할 때에 각종 혜택과 더불어 러시아 정교회로의 개종을 요구받았다. 이후 구한말 기독교는 연해주 지역 선교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형근, “고려인 디아스포라와 선교,” 「선교와 신학」 16 (2011), 99-101.

졌다. 문제는, 아래에서 다루겠지만, 조선인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선별적 대우가 이후 1900년대 고려인들 간의 갈등의 단초가 되었다는 점이다.

야곱의 일가가 이집트에 이주했던 초기에는 각종 혜택을 부여했다가 그들의 인구 규모가 커지자 긴장하고 탄압정책으로 전환했던 이집트의 바로 정권처럼, 연해주 지역 고려인 규모가 커지자 제정러시아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고려인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탄압의 단초는 을사늑약(1905) - 한일강제병합(1910)에 이르는 대한제국의 쇠망기(衰亡期)와 맞물려 있다. 이 기간에 국권상실로 인해 많은 한인들이 정치적 망명 차원에서 연해주로 이주해왔고, 미묘한 갈등 관계에 있던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지리적으로도 서로 가까운 이 연해주 지역은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연흥룡주 총독 운테르베르게르는 내무부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일본, 중국과 전쟁을 할 경우에는 고려인들이 적국의 스파이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¹¹⁾ 결국 러시아는 연흥룡주 지역에서 고려인들의 노동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이 시도는 값싼 고려인 노동력을 이용했던 러시아 업주들의 반발로 인해 이듬해 결국 폐기되었지만, 이것은 1937년에 이루어진 비극적인 고려인 강제이주 사건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님을 방증한다.

고려인들에 대한 러시아의 견제가 이루어지던 중에 고려인들끼리의 갈등이 또 다른 문제로 떠올랐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러시아는 고려인들에게 토지를 배분했는데, 당시에 배분을 받았던 고려인과 나중에 이주하여서 배분받지 못한 고려인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전자 고려인들을 가리켜서 원호인, 후자 고려인들을 가리켜서 여호인이라 불렀는데, 원호인은 부유한 지주층이었고 여호인은 그들 밑에서 토지를 빌려 쓰는 소작농들이었다. 이 두 집단은 같은 고려인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차이로 인해 거주지도 달리고 서로 결혼도 하지 않는 등 서로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가진 관계가 되었다.¹²⁾ 이러한 반감은 1917년

11) 반병률, “한국인의 러시아 이주사,” 73.

볼셰비키 혁명과 1918-1922년에 벌어진 시베리아 내전으로 인해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1918-1922년에 미국, 영국, 러시아, 체코, 볼셰비키 군대, 일본 등 여러 세력들이 시베리아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모든 나라들이 다 빠져 나간 상태에서 러시아에 세력을 미치고 싶어 했던 일본군은 잔존하였다. 이에 고려인들은 볼셰비키군에 가담하여서 일본군과 싸웠고 일본군의 보복 학살이 이루어졌다.¹³⁾ 그러나 1922년에 일본이 물러가고 극동 공화국(Far Eastern Republic)이 사회주의 소비에트로 편입되자 볼셰비키는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고려인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집단농장(콜호즈) 생산체제로 들어갔다. 이러한 체제의 변화 속에서 토지를 배분받은 지주 계급의 원호인들은 반혁명적인 입장에서 친일 행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지 못한 여호인들은 볼셰비키 혁명파에 속하게 되어 같은 고려인들끼리 서로 극한 대립을 하게 되었다.¹⁴⁾

제국주의 일본이 한반도를 강제로 점령하고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잡으려 세력 확장을 하자 소비에트연방(소련)도 더욱 일본을 견제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희생된 것이 연해주 고려인이었다. 1926년 12월 6일에 연방소비에트 집행위원회 간부회의는 고려인들에 대한 이주정책을 결정하여, 고려인들을 우수리스크에서 하바로프스크 이남 지역에 거주시키지 않도록 하였다.¹⁵⁾ 이것은 고려인들이 일본과 내통할 지도 모른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이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이듬해에 일제의 허수아비 만주국을 세우면서 아시아에서 더욱 세력을 확장하자 소련은 동편과 서편에서 각각 이중으로 일본을 경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그래서 소련은

12) 반병률, “러시아 한인(고려인) 사회,” 103-104.

13) 윤병석, “소비에트 건설기의 고려인 수난과 강제이주,” 『중앙사론』 21 (2005), 572-594 [577-578].

14) 반병률, “러시아 한인(고려인) 사회,” 115-116; 윤병석, “소비에트 건설기,” 581-582.

15) 전신욱, “연해주 한인,” 214.

선제적으로 일본을 경계하기 위해 연해주 지역의 고려인들을 일본 스파이로 몰아세우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과거 운테르베르게르의 내무부 보고서를 통해 일본 스파이로서 고려인을 지목하던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고, 1937년 3월 16일 「프라우다」는 “일본의 간첩망”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여 일본이 소련에 한국인과 중국인 스파이를 보내고 있다는 모함을 하였다. 더구나 그해 7월에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소련은 일본이 소련도 침략할 것이라고 불안에 떨게 되었으며, 연해주 고려인에게 의혹의 눈총을 보내던 그들은 더 나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소련은 중·소 불가침 조약을 통해 중국과 연대하여 일본을 경계하기 시작했으며, 일본 스파이의 침투를 차단한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스탈린과 몰로토프 주도 하에 1937년 8월 21일에 고려인의 강제 이주를 결의하였다(No. 1428-326 CC).¹⁶⁾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1937년 연해주 고려인들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의 배경이다. 1938년 1월 1일까지 모든 고려인들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옮기라는 이 결정은 순식간에 실행에 옮겨졌다. 결정된 지 채 두 주도 안 되어 1937년 9월 1일에 시작된 강제이주는 그해 11월 15일에 완전히 마무리 될 정도로 신속히 이루어졌다. 이주 통보가

16) 심헌용은 전쟁이 벌어질 경우 적국의 편에 설 것에 대한 우려로 소련이 고려인을 강제이주 시켰으나 이러한 처우는 유독 고려인들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음을 지적하였고, 실제로 당시에 고려인뿐만 아니라 서부에서는 독일인들이 소련으로부터 추방을 당했다. 그는 이러한 예로서 소련이 터키와 전쟁을 치를 경우 터키계 주민들이 배신할 것을 우려하여 1944년 11월에 그루지야의 아자리야 자치공화국에서 터키계의 투르크-메스헤젠, 쿠르드족을 강제로 이주시킨 사례를 들고 있다. 심헌용, “강제이주의 발생 메카니즘과 민족관계의 특성 연구: 소련 강제이주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39:3 (1999), 211. 더 나아가서 그는 강제이주와 같은 비인도적 행위를 소련에 국한시키지 않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버젓이 이루어지는 보편적 행태로 본다. 그 예로서,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국이 자국 내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소개시키고 통제한 것이나 나치 독일도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것을 제시한다. 심헌용, “고려인 강제이주의 역사,” 「고려인 강제이주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한국현대문화회, 2007. 6), 27.

주어진 지 불과 며칠 만에 고려인들은 급히 강제수용 열차에 실려서 떠나야 했다. 물론 이 정책에 따르면 자신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고,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보상도 약속받았으며, 제 3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는 보내주기로 했으며, 차량도 지원해주기로 했으나,¹⁷⁾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없었다.¹⁸⁾

이 기간에 강제이주를 당한 연해주 고려인들은 총 171,781명으로서, 26,442가구가 방한(防寒)처리도 제대로 안 된 124대의 개조된 가축운반 수송열차에 동물처럼 실려서 시베리아 벌판을 관통하여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여러 중앙아시아 지역에 ‘내버려졌다.’ 열악하고 비인간적인 상황에서 추운 시베리아 지역을 한 달 남짓 여행하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며, 수없이 많은 노인과 어린이가 여행 중에 질병과 굶주림과 추위로 죽었다. 시신들은 기차가 아무렇게나 정차한 들판에서 제대로 매장조차 되지 못했으며, 고려인들은 한 달 남짓 여행한 후에 중앙아시아의 늪지대나 허허벌판에 버려지다시피 떨어뜨려졌다. 그들은 들판에서 추위를 피해 땅굴을 파거나 갈대움막을 짓고 겨울을 나아했다. 강제이주로 버려진 그 이듬해 7,000명이, 그 다음해에는 4,800명이 죽어나갔다.¹⁹⁾ 이주를 당한 후에도 고려인들은 스탈린 정권 하에서 거주이전 제한을 당하고 차별과 비인권적인 대우를 받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살아남아야 했다.

1.2. 사할린 한인의 상처들 - 또 다른 갈등의 시작

17) 구체적인 결의문 내용은 이광규,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서울: 집문당, 1998), 67을 보라.

18) 심현용, “고려인 강제이주의 역사,” 31. 전신옥은 이러한 소련의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증언 사례를 전하면서 밝힌다. 전신옥, “연해주 한인,” 222-224.

19) 이광규, “다시 쓰는 한민족 이민사 -구소련 (4회),” 「서울신문」 1999년 1월 29일.

연해주 ‘고려인’들의 역사와 강제이주의 아픔이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사할린 한인’들의 비극적 역사는 193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²⁰⁾ 사할린은 연해주 동편에 있는 섬으로서, ‘사할린 한인’의 비극은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 다툼에서 비롯한다. 사할린은 1855년 시모다(Shimoda)조약에 의해 러시아와 일본이 공동지배하다가 1875년 페테르스부르크(St. Petersburg)조약에 의해 러시아가 단독 지배했다. 그러나 1904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함으로써 북쪽은 러시아가, 남쪽은 일본이 지배하였다. 이후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배로 다시 러시아로 귀속되었다.²¹⁾ 1904년 러일전쟁으로 남사할린을 차지한 일본은 특히 1938년부터 석탄과 유전을 개발하는 데 약 4만 명의 삼남지방과 충청, 제주 지역의 한인들을 강제로 징용했고, 고향으로부터 일본에 의해 남사할린으로 강제이주를 당한 한인들은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한 고려인들처럼 굶주림과 노동착취, 폭력과 차별 등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사할린 한인들의 고난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태평양전쟁(1941-45)이 일본의 패배로 끝나자 사할린은 다시 소련에 귀속되었고, 남사할린에 있던 일본인들도 1946년 “소련지구귀환미소협정”에 의거하여 일본으로 귀환하였다. 문제는, 남사할린으로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한인들은 사할린에 방치된 것이다.²²⁾ 마침 사할린 지역의 개발을 위해 노동력이 필요했던 소련은 과거 제정 러시아가 연해주 개발을 위해 고려인들을 이용했듯이, 남겨진 한인들을 억류하고 사할린

20) 사할린에도 1860년대 이후로 한인들이 살았으나 1937년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당시 소련 소유의 북사할린의 고려인들은 강제이주를 당해 사라졌고, 1910년 대한 제국의 일제강점기에 의해 일본 소유 남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된 사람들이 거주했다. 정진아, “고려인 사할린 한인과 한국인의 역사연대와 문화통합,” 『통일인문학』 61 (2015), 246-247.

21) 이재혁, “일제강점기 사할린의 한국인 이주,” 『한국시베리아 연구』 15:1 (2011), 89-90.

22) 일제의 이런 무책임하고 비인도적인 행태는 다른 강제징용 현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개발에 이용하였다. 결국 사할린에 남겨진 한인들은 일본의 편에서 볼 때는 버려진 것이고, 소련의 편에서 볼 때는 억류당한 것이었다.

버려진(억류된) 사할린 한인들은 1960년대에 한국으로 귀환시켜줄 것을 희망했으나, 소련은 대한민국정부와 외교관계 단절을 이유로 일본 정부에게 공을 넘겼고, 미국은 무관심 내지는 반대했으며,²³⁾ 일본과 대한민국정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했고,²⁴⁾ 그 와중에 사할린 한인들은 소련과 일본과 조국인 대한민국으로부터도 버려진 디아스포라가 되었다.²⁵⁾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했던 연해주 고려인들처럼 남사할린 한인들 또한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역사적 혼돈”과 “복잡한 국제정치적 상황에 의해” 기구한 운명을 겪었다.²⁶⁾ 사할린 한인들은 강제로 사할린에 징용을 당해 끌려와서 일본에게 이용당하다가, 해방 후에는 소련에게 이용을 당했으며, 막상 자신들의 작은 요청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책임 넘기기의 대상으로서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소모품이었다.

한편, 연해주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들의 갈등은 1945년 이후에 직접적으로 부상한다. 소련은 일본이 내버리고 간 사할린에 남겨진 한인들을 사회주의 체제로 수용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로 이주 당했던 고려인들을 사할린으로 이주시켜 사할린 한인들을 동화시키도록 하였다.²⁷⁾

23) 장석홍은 연합군 사령관과 소련이 맺은 협정에서 미국이 사할린 한인의 귀환에 대해 “형식적이거나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 남한 지역으로의 귀환을 반대하는 입장”(213)까지 보였다는 것을 미국 국립문서기록청 자료를 제시하면서 밝히고 있다. 장석홍, “사할린 지역 한인 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 43 (2007), 210-275.

24) 정진아, “고려인, 사할린 한인,” 247.

25) 사할린에 버려진 한인들에 대한 소련, 일본,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회피의 역사에 대해서는 최승수, “사할린 억류한인의 국적귀속과 법적 제 문제,” 「한국근현대사연구」 37 (2006), 35-60을 보라.

26) 이재혁, “일제강점기 사할린,” 120-121.

27)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했던 고려인들이 모두 연해주나 사할린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다.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들이 나오려고 한 것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지는 내전, 이슬람 종교, 러시아어가 아닌 민족어를 강제하는 중앙아시아

그러나 이 고려인들과 사할린 한인들은 서로를 비방하며 갈등을 벌이기 시작했다.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들에 대해 사할린 한인들은 거들먹거리며 군림하려드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했으며,²⁸⁾ 고려인들 역시 사할린 한인들을 가리켜 “러시아 말도 못하고 일본어만 하는 사람들”, “친일 분자”라고 매도하였다.²⁹⁾

계다가 연해주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들의 갈등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각이 끼어들면서 또 다른 갈등을 낳았다. 즉, 연해주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들끼리 갈등 관계 속에서는 사할린 한인들이 친일파가 된다. 그러나 한국인의 시각에서 보면 고려인들은 구한말에 나라가 어려울 때 자기 혼자 살겠다고 조국을 버린 “배신자”, “도망자”인 반면, 사할린 한인은 “강제징용자”로서 한국인들과 같이 “일제의 피해자”라는 입장에 놓이기 때문이다.³⁰⁾ 다행히 1989년 이후부터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한국정부가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과 사할린 한인들을 돌아보기 시작하였다. 사할린 한인들의 영주귀환과 한국정착 지원이 이루어져 왔고, 그동안 외면당했던 일본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³¹⁾

지금까지 살펴본 연해주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역사는 그들이 가졌던 상호 갈등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보여준다. 위에서 보듯이, 원호인과 여호인,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 있었던 반목이나 갈등, 혹은 증오는 이들 중 그 누구의 잘못으로 빚어졌다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불운한 역사적 상황으로 생긴 슬픈 결과이며, 이 모두는 서로에게 가해자이기

각국의 언어정책 등 다양한 원인이 있었다. 이채문, 박규택,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러시아 극동 지역 귀환 이주,”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4 (2003), 561.

28) 정진아, “고려인. 사할린 한인,” 250.

29) 반병률, “한국인의 러시아 이주사,” 65-66.

30) 정진아, “고려인. 사할린 한인,” 249-250.

31) 나형욱,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정착실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2009. 12), 109-137.

도 했지만 동시에 역사적 현실과 상황의 피해자였다.

2. 마가공동체와 로마교회의 아픈 상처

연해주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슬픈 과거와 상처는 마가공동체와 로마교회 공동체가 각각 겪었던 아픈 상흔과 중첩된다. 여기에서 나는 이 두 공동체가 겪어야만 했던 아픈 상처들과 그것들이 어떻게 치유의 과정을 겪는지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러시아 디아스포라들의 지난 상흔을 되돌아볼 것이다.

2.1. 마가공동체의 상황과 제자들의 실패

마가복음이 보이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의 열두 제자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려진다는 것이다.³²⁾ 그 이유에 대해 마가복음 연구자들은 다양한 가설들을 제시하였고, 이 가설들은 이상하게 끝을 맺는 마가복음의 종결부에 대한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³³⁾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궁극적으로 마가공동체의 상황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대표적인 예로서, 위든(T. J. Weeden)은 마가의 공동체 안에 마가가 지향하는 섬김과 희생의 신학이 아닌 영광의 신학

32) 마가의 등장인물설정을 통한 제자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각인에 대한 문학적 전략을 보려면 Jayhoon Yang, "'One of the twelve' and Mark's narrative strategy," *ExpTim* 115:8 (2004), 253-257을 보라.

33) 마가복음의 끝을 맺는 방식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을 소개한 것을 보려면, David Black, *Perspective on the Ending of Mark: 4 Views*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8); 양재훈, "마가복음의 끝은 진정 끝났는가?: 마가복음 끝 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향," 「협성신학논단」 7 (2005), 78-96; 김영인, "마가복음의 결말과 종결의 GAR," 「성경원문연구」 27 (2010), 56-70; 유태엽, "마가의 결말(16:8)의 진정성과 의미에 대한 고찰," 「신학과세계」 70 (2011), 60-95을 보라.

즉, 섬김을 받고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신학을 전파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신인(theios-aner) 기독교론을 지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대로 마가복음을 썼다고 주장한다.³⁴⁾ 이러한 주장은 갈릴리 공동체와 예루살렘 공동체 사이의 갈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³⁵⁾ 이것은 두 공동체가 각각 지향하는 바, 섬김과 희생을 추구하는 인자 기독교론과 영광과 섬김을 받는 태도를 견지하는 신인 기독교론의 대립이기도 하다.

다른 학자들은 마가가 이상하게 끝을 맺는 이유와 제자들에 대한 부정적 묘사를 독자들의 대화라는 차원에서 설명한다.³⁶⁾ 예를 들어, 부머샤인(T. E. Boomershine)은 마가가 자신의 이야기 끝을 여성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침묵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이유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들에 대해 공감적 거리(sympathetic distance)를 두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완성하지 못한 역할을 독자 자신이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하려는 문학적 장치라고 본다.³⁷⁾ 따라서 이러한 의견은 마가가 자신의 공동

34) T. J. Weeden, *Mark: Traditions in Conflic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1), idem, "The Heresy That Necessitated Mark's Gospel," *ZNW* 59 (1968), 145-158.

35) 이러한 가설을 제시하는 대표적 학자로는 J. B. Tyson, "The Blindness of the Disciples in Mark," *JBL* 80 (1961), 261-268; J. D. Crossan, "Empty Tomb and Absent Lord (Mark 16.1-8)," W. H. Kelber, ed., *The Passion in Mark: Studies on Mark 14-16*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6), 135-152; idem, "Mark and the Relatives of Jesus," *NovT* 15 (1973), 81-113 등이 있다. 참고로, 김득중("과부의 헌금: '칭찬'인가 '경고'인가?" 「신학논단」 43 [2006], 321-334)은 마가가 14장에 나오는 과부의 헌금 장면을 통해 과부로 하여금 생활비를 전부 털어 넣도록 만든 예루살렘 성전 제의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Cf. 박수암("마가의 이적 이해," 「장신논단」 16 [2000], 110-132)은 신인기독교론 가설에 대한 반대를 제시하면서(118-119), 막 13의 구조를 가지고 네 가지 주제로 마가의 기적을 분류하고 배열한다(120-132). 그는 반(反)성전 모티브로서의 기적·이방인 선교(하나님 나라의 범위가 이방인까지 확대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 - 믿음이라는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기적 - 예수가 누구인지 말해주기 위한 기적 등으로 마가복음의 기적들을 분류하고 이것을 막 13장의 구조에 맞춰서 배열하였다.

36) 이러한 가설은 내러티브 비평적 읽기를 시도하는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R. Tannehill, E. S. Malbon, M. A. Tolbert, T. E. Boomershine, B. M. F. van Iersel 등이 있다.

37) T. E. Boomershine("Mark 16:8 and the Apostolic Commission," *JBL* 100:2[1981],

체나 적대적 공동체의 갈등 관계에 특별한 조망을 하지 않고 마가와 독자의 관계만 집중한다.

국내 학자들은 주로 마가공동체의 상황을 주변 세계나 마가의 신학과 연결 지어서 설명한다. 예를 들어, 서용원은 마가공동체가 박해와 배교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고, 이러한 처지 가운데서 공동체의 신앙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마가복음이 저술되었다고 주장한다.³⁸⁾ 그는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기독교론과 인자 기독교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기독교론을 포기했으며, 그 이유는 자신의 공동체가 반로마적 공동체가 아님을 보여줌으로써 로마 당국과의 마찰을 피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생존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자 기독교론을 추구함으로써 고난과 배신의 상황 속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생존을 위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용기를 북돋으려 했다고 그는 주장한다.³⁹⁾ 서용원이나 유태염은 마가의 공동체는 박해의 상황에 있었고 마가는 그런 공동체 구성원에게 용기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한다.⁴⁰⁾ 따라서 이 학자들에게 있어서 마가복음은 마치 요한계시록과 같은 기능 즉, 고난 가운데 힘과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⁴¹⁾

225-239. 같은 의견으로 Tolbert, "Mark," C. A. Newsom and S. H. Ringe, eds., *The Women's Commentary* (Louisville: W/JKP, 1992), 263-274(274); E.S. Malbon, "Fallible Followers: women and men in the Gospel of Mark," *Semeia* 28 (1983), 30; idem, "Disciples/Crowds/Whoever: Markan Characterization and Readers," *NovT* 28:2 (1986), 124-125를 보라.

38) 서용원, "마가복음의 배경에 대한 역사적, 문학적 연구," 「신약논단」 9:1 (2002), 1-38.

39) 서용원, "마가복음의 기독교론적 구조에 나타난 공동체의 생존 모티브," 「신학논단」 43 (2006), 335-351.

40) 유태염, "마가공동체의 삶의 정황에 대한 물음," 「신학과세계」 77(2013), 32-64(56-62); idem, "마가의 결말," 82-84.

41) 따라서 서용원은 소복시록 마가복음 13장을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제자의 길을 저버리지 않도록 용기와 격려를 주는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서용원, "마가복음 13장에 나타난 때와 제자직," 「신약논단」 5 (1999), 179-204; idem, 『마가복음과 생존의 수사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219-243.

한편, 다른 학자들은 로마제국의 관계나 유대전쟁 등과 같은 시대적 정황과 관련하여 마가공동체의 상황과 마가복음의 저술 목적을 설명한다. 앞서 말했듯이, 서용원은 하나님의 아들 기독교론을 포기함으로써 반로마적 색채를 누그러뜨리려 했다고 한 반면, 민준홍은 마가공동체가 로마제국의 세계관에 대한 반항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한다. 그는 마가공동체가 로마제국에게 경제적인 저항을 하고, 당시 세계에 편만하던 경제관에 반대하여 가난을 제자도의 모습으로 제시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공동체였음을 말한다.⁴²⁾ 서중석은 마가가 예수를 길의 여행을 하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로 그려놓고 있으며, 이것은 유대전쟁으로 인해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된 마가공동체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⁴³⁾ 서중석은 이러한 예수 이미지는 유대전쟁으로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 처한 마가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강화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⁴⁴⁾

마가공동체와 마가복음의 저술 목적 등에 대한 가설은 위와 같이 다양하며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우리 한인들이 지난 과거에 겪었던 일련의 상처들과 아픔들을 생각해 본다면 마가복음 공동체와 저술목적에 대한 또 하나의 가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 어즐(van Iersel)은 제자들에 대한 마가의 부정적 인물설정을 박해의 상황에서 마가공동체가 겪어야만 했던 상처와 그것의 극복 과정으로 설명한다. 반 어즐은 라드클리프(T. Radcliffe)의 발견에서 마가공동체의 상황을 추적한다.

라드클리프는 마가공동체가 로마제국으로부터 큰 박해를 받았으며,

42) 민준홍, “로마제국의 경제적 통치방식과 마가공동체의 정황,” 「신약논단」 21:1(2014), 59-90.

43) 서중석, 『복음서의 예수와 공동체의 형태』 (서울: 이레서원, 2007), 15-36.

44) 서중석, 『복음서의 예수』, 35-36. 한편, 김형동은 박해의 상황 속에서 마가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도를 제시하는 한편, 거부당하는 지혜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상황과 정체성을 연결시켜보도록 했다고 말한다. 김형동, “복음서에 나타난 지혜전승과 그 함의성,” 「신약논단」 20:1 (2013), 1-31.

그 박해의 상황에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고 말한다.⁴⁵⁾ 그는 로마제국이 기독교인들을 사로잡아서 고문을 가했고,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동체 형제들에 대해 정보를 누설했으며,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다는 타키투스의 증언(Ann. 15.44)에 착안한다. 반 어즐은 이것을 마가복음 13장 9-13절에 나오는 배신에 대한 구절과 연결시킨다.⁴⁶⁾ 그는 소목시록에 나오는 이 구절이 마가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박해 속에서 생겨난⁴⁷⁾ 상호배신과 배교의 흔적이라고 본다. 즉, 마가공동체는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형제를 배신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었으며, 마가는 마가공동체가 그들을 용서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다.

반 어즐은 한편으로는 마가가 자신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박해를 받는 다른 동료에게 도움을 줄 것을 말하였다고 본다. 즉,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한잔이라도 주는 행위(막 9:41)를 가리켜서 박해를 피해 도망치는 그리스도인 형제가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그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본다.⁴⁸⁾ 다른 한편으로 반 어즐은 이미 형제를 배신하고 배교한 형제가 있을 때 그를 공동체 안으로 다시 영접하면서 위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마가가 취했다고 본다. 그는 마가가 제자들의 실패하는 부정적 모습을 복음서에 그려놓음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한다고 본다. 즉, 마가는 제자들이 예수를 배신하고 실패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위대한 사도들도 한 때는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다는 말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배교했던 형제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죄책감을 다소

45) T. Radcliffe,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Mark's Gospel and the subversion of 'the apocalyptic imagination,'" B. Davies OP., ed., *Language, Meaning and God: Essay in honour of Herbert McCabe OP* (London: Geoffrey Chapman, 1987), 178-189.

46) van Iersel, "Failed Followers in Mark: Mark 13:12 as a Key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Intended Readers," *CBQ* 58(1996), 244-263.

47) van Iersel,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rk - written for a persecuted community?," *NedTTs* 34(1980), 15-36.

48) van Iersel, "Failed Followers," 252.

누그러뜨리고, 그 결과 그들이 다시금 공동체 안으로 용서를 받고 들어와서 화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2.2. 로마교회의 상처와 바울의 해법

이신칭의(以信稱義)라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는 로마서는 전통적으로 신앙적 교리서로 인식되었었고, 실제로 루터나 웨슬리 등과 같은 많은 신앙개혁자들이 로마서를 통해 신앙적 각성을 이루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신서로서의 로마서에 대한 조망이 이루어진 이래로 로마서를 1세기 중반 바울의 상황과 연결해서 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바울이 로마서를 저술한 목적에 대해 던(J. D. G. Dunn)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본다.⁴⁹⁾ 첫째, 선교적 목적으로서,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위해 일종의 디딤돌 역할을 해 줄 베이스캠프가 필요했고,⁵⁰⁾ 이러한 이유에서 로마서를 썼다는 가설이다. 둘째는 변증의 목적으로서, 바울 자신의 복음과 관련된 일련의 오해들을 불식시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로마 교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는 가설이다.⁵¹⁾ 셋째는

49) J. D. G. Dunn, 『로마서 1-8』, 김철, 채천석 역, (WBC 38상; 서울: 솔로몬, 2003), 66-73. 로버트 주엣은 보다 상세하게 가설들을 소개한다. R. Jewett, “8. The Purpose of Romans in the Plan for the Spanish Mission”, in *Romans: A Commentary on the Book of Romans* (Hermeneia Commentary CD-Rom;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50) 스페인 선교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던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교회는 중요한 발판이었다. 왜냐하면 (1) 스페인 식민지에는 유대인들이 거주하지 않았던 점 (2) 언어 소통의 장애(cf. 1:14) 문제가 바울에게 걸림돌로 있었고 (3) 로마의 식민지라는 관계로 인해 바울은 로마와의 연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R. Jewett, “7. The Cultural Situation in Spain: Subjugated Barbarians”를 보라.

51) 이러한 가설은 몽크(J. Munck)나 저벨(J. Jervell)의 주장을 대변한다. 특히 저벨은 바울이 로마보다는 예루살렘 교회를 인식하고 로마서를 썼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성격은 그의 논문 제목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J. Jervell, “The Letter to Jerusalem,” K. P. Donfried, ed., *The Romans Debate* (Edinburgh: T.&T. Clark, 1991), 53-64.

목회적 목적으로서, 로마교회의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즉, 로마교회의 이방인 신자들의 성숙하지 못한 유대인 신자들에 대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한 목회적 목적으로 로마서를 썼다는 것이다.⁵²⁾

최근 로마서 연구에 있어서는 대체로 첫째 가설을 중심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유대-이방인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9-11장은 인간의 죄성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이라는 전통적인 교리적 내용의 로마서 읽기를 지지해주는 1-8장의 독자들을 당혹하게 했었고, 볼트만이나 다드는 이 탈(脫)문맥적인 부분을 삽입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부분은 로마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고, 바울은 이 상황을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스페인 선교를 위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정승우는 9-11장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로마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 품고 있는 오해를 풀어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예루살렘과 스페인 여정에 있어서의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⁵³⁾

주지하다시피, 크레스투스(Crestus) 문제로 인해 야기된 서기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수에토니우스, Claudius 25.4)과 54년 이후에 가능해졌던 그들의 로마 귀환이 로마교회의 갈등요소가 된 것은 로마서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 고린도에서 이루어졌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바울의 만남을 전하는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도 이 사건은 증명되고 있다(행 18:1-2). 바울로 인해 세워진 대부분의 이방인 교회와 달리 로마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공동체였다. 예루살렘에서

52) 이한수는 16장에 언급된 로마 교인들의 이름들을 분석하면서 로마교회의 구성원들의 이방인-유대인 비율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바울이 유대인 신자들의 배타주의와 이방인 신자들의 자기중심적 배타주의를 비판하려고 로마서를 썼다고 주장한다. 이한수, “로마교회의 상황과 로마서의 저술목적,” 『신학지남』 294 (2008), 61-82.

53) 정승우, “로마서 9-11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구원문제와 로마교회의 사회적 정황,” 『신약논단』 12:1 (2005), 50.

있었던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과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경험했던 로마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행 2:10)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였을 것이다. 따라서 로마교회의 초기 창립 구성원들은 유대인 신자였을 것이다.⁵⁴⁾

그러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명령으로 유대인 신자들이 추방당하자 로마교회는 자연스럽게 이방인 신자들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었고, 54년 이후 로마로 귀환한 유대인 신자들의 입지는 로마교회에서 상당히 소수로서 위축되었을 것이다.⁵⁵⁾ 유대인 신자들의 로마 귀환은 다수 이방인 신자들과 소수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서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 교회 안에서의 헤게모니 등의 문제로 마찰을 야기했고,⁵⁶⁾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바울은 9-11장을 통해 일단 소수의 입장에 놓인 유대인 신자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이방인 신자들의 기세를 눌러 놓는다. 예를 들어, 참올리브 나무와 돌올리브 나무의 비유에서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교만하지 말 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직접 언급한다(11:18, 20).

그러나 바울이 유대인 신자의 우월함과 이방인 신자의 열등함을 말하는 것은 그의 수사적 전략일 뿐, 이 둘의 본질적이고도 절대적인 상하관계를 말하기 위함이 아니다. 도리어 바울은 로마서 전반에 걸쳐서 “차별 없음”(2:11; 3:22; 10:12)에 대해 강조한다(1:16).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대상에 있어서도(1:18-3:20; cf. 2:9-10), 하나님의

54) 최갑중은 16:7에서 언급된 “먼저 사도가 된 유대인 안드로니코와 유니아” 구절이 이미 서기 30년대에 로마교회가 유대인들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암시한다고 주장한다. 최갑중, “바울의 예루살렘, 로마, 그리고 서바나(스페인) 방문의 상호연관성과 그 의의,” 『신약논단』 20:2 (2013), 409-442[426-427].

55) 이한수는 16장의 문안인사에 등장하는 26명의 이름을 성비, 신분, 혈통 등으로 조사했는데, 그 결과 가는 로마교회가 (1) 헬라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였고 (2) 로마 태생보다 이주민의 비율이 높았으며 (3) 여성들의 역할이 컸고 (4) 노예나 노예출신의 비율이 높았으며 (5) 유대인 신자들의 비율이 15%로서 상당히 저조하다고 주장한다. 이한수, “로마교회의 상황,” 72-80.

56) Dunn, 『로마서 1-8』, 66-67; 최갑중, “바울의 예루살렘, 로마,” 428.

구원에 있어서도(3:21-31)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1:16; 4:29). 유대인 신자의 편을 들어주는 9-11장에서조차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똑같이 포용한다(9:24; 10:12). 로마교회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바울은 한편으로는 이방인 신자들의 교만을 꺾어놓고(9-11장),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에 헌금을 가지고 찾아가는 몸짓을 보임으로써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영적인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최갑종의 표현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고 간 헌금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목을 위한 일종의 화목제물이었다.⁵⁷⁾

3. 러시아 한인 디아스포라, 마가공동체, 그리고 로마교회

지금까지 우리는 연해주 고려인들, 사할린 한인들, 그리고 마가공동체와 로마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유사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의에 의해 옮겨지고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흔적들을 지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연해주 고려인들은 19세기 말 극심한 가뭄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정든 고향을 등져야 했으며, 일본 스파이로 몰려서 1937년 강제 이주를 당해야 했다. 사할린 한인들은 강제로 징용을 당해 고향을 떠나 외국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했고, 1945년 해방 후에는 타국에 내버려졌다. 이들은 타국에 억류된 채 제정러시아, 소련, 일본에게 억압과 착취의 아픔을 겪었다.

로마교회 역시 비슷한 상흔을 지니고 있다. 나라를 빼앗겨서 고향을 떠나(exodus) 로마에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던 유대인 신자들은 로마 제국의 정책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 고향인 로마에서 또 다시 쫓겨나서(exile) 유리방황해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들의

57) 최갑종, “바울의 예루살렘, 로마,” 429.

두 번째 아픔은 서기 54년 이후 세 번째 아픔으로 이어졌다. 두 번째 고향인 로마로 다시 돌아갔을 때 유대인 신자들은 그곳에서 다시금 손님의 자리로 밀려나게 되었다. 로마교회는 자신들의 손으로 세워 놓은 교회였지만, 그들이 두 번째 추방(exile)에서 귀환했을 때 자신들이 있던 자리는 이방인 신지들에 의해 이미 채워졌고, 그들은 제 2의 고향에서 다시금 디아스포라의 입장에 놓이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타의에 의해 이루어진 추방(exile)은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들 간에 반목과 갈등을 벌이도록 하는 큰 상처를 남겼다. 연해주로 자의에 의한 추방(exodus)을 경험했던 조선인들은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면서 체정러시아 당국의 차별적 정책으로 인해 결국 원호인과 여호인으로 갈라져서 같은 동포끼리 서로 반목하고 멸시하고 분열하는 아픔을 겪었다. 패망 일본제국의 무책임한 방치, 미국의 무관심, 대한민국의 무능과 소련의 탐욕으로 인해 사할린 한인들은 다시금 내버려졌고, 소련의 사회주의 이념정책으로 인해 같은 민족인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 사이에도 반목과 질시와 갈등의 상처가 생겼다.

마가공동체 역시 나라의 패망과 더불어 박해의 상황 속에서 타의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결국 신앙의 가족을 배신하게 되는 아픈 상처를 갖게 되었다. 후에 그들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려 했을 때 그 배신의 죄책감과 상처는 피해자임과 동시에 불가피하게 동료 형제에 대한 가해자가 되었던 그들에게 너무나 힘든 고통이었다. 로마교인들 또한 로마를 떠나 두 번째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다가 다시 두 번째 고향인 로마로 돌아왔을 때 같은 믿음의 형제들과 갈등을 벌여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첫 번째 고향을 빼앗긴 상처를 지니고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로 귀환한 이후 겪었던 상황은 두 번째로 고향을 빼앗기는 상처를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로 인해 같은 믿음의 형제들과 반목해야만 하는 슬픈 상처를 추가로 갖게 되었다.

마가는 외부의 폭력적인 권력에 의해 내부인들 간에 겪어야 했던 상처를 높은 위치에 있는 이의 낮아짐이라는 방법을 통해 치유한다.

만일 파피아스의 증언대로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증언에 따라 마가가 기술한 것이라고 한다면, 마가는 당시 초대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실패를 그려냄으로써 실패한 보잘 것 없는 형제를 공동체로 회복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가복음의 예수 또한 낮아짐과 섬김, 자기희생의 표상으로 제시되고 있다(10:45). 갈릴리에서의 배의 여행 모티브 또한 이방인 지역과 유대인 지역을 바느질 하듯 하나로 꿰어놓는 화합이자 회복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⁵⁸⁾

바울 역시 로마서를 통해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하나됨을 말한다. 12장부터 15장까지 계속되는 그의 윤리적 훈계 가운데는 상호 존중, 용납(15:7)과 화합의 메시지(15:5-6)를 강하게 담고 있다. 로마 교인들은 남을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하며, 서로 평화를 도모해야 한다(12:18; 14:1-15:7). 그들은 서로 자기의 자리에서 분수대로 상호 인정과 존중을 하며 공존해야 한다(12:3-8. cf. 고전 12:4-31; 롬 13:8-10). 그들은 교만을 버리고 낮아져서 서로 한 마음을 품어야 하며(12:16; 15:5-6), 자기에게 악하게 대했던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12:14, 17). 한편으로 보면 그저 평범한 교훈적 설교처럼 보일 수 있는 로마서 후반부의 훈계는 로마교회가 씨름하던 두 그룹들 사이의 갈등 문제와 연결해서 보면 이 공동체에게 주는 상당히 구체적인 지침이다.

연해주 고려인들과 사할린 한인들의 슬픈 역사와 그로 인해 빚어진 모든 갈등과 반목과 분열의 상처는 마가공동체와 로마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비슷하게 경험된 것들이었다. 마가와 바울은 이런 공동체들의 상처들을 나름대로 각각 보듬어 가고 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마가는 마가공동체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고 서로 용납하여 함께 손잡고 “다시 갈릴리로”(16:7)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도록 이끌고 있다. 또한 바울은 유대인 이방인 신자가 서로 용납하고 화해한

58) W. H. Kelber, *The Kingdom in Mark: A New Place and a New Tim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4), 45-46.

후 힘을 합해 바울이 계획하고 있는 땅 끝 스페인 선교를 지원하는 베이스캠프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 두 명의 성서 저자들은 반목과 분열, 상처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도리어 진일보(進一步)의 계기로 전환하는지 그 방식을 잘 보여준다.

나가는 말

우리는 올해 해방 70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민족은 여전히 이념대립으로 인해 나뉜 분단국가⁵⁹⁾로서 같은 민족끼리 원수지간으로 남아있다. 다른 분단국가인 아일랜드, 키프로스, 중국 등과는 달리 한민족은 비운의 역사 속에서 외부세력에 의해 동족이 나뉜 경우에 해당한다. 연해주 고려인이나 사할린 한인들의 역사에서도 보듯이 한민족의 아픔은 우리 자신들보다는 외부 세력들이 힘없는 약소국에게 저지른 잔인한 패권다툼의 소용돌이로 인해 남겨진 것이었다. 과거 우리 조상의 약소함으로 외세를 막아내지 못한 탓도 있으려니와, 오늘의 아픈 분단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아픔을 싸매고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과거에 연해주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들이 겪었던 아픔을 마가복음과 로마서의 눈을 통해 반성적으로 되돌아볼진대, 우리는 남북한이 오늘날까지 갖고 있는 이 상처를 어떻게 싸매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진일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가공동체와 로마교회에게 던졌던 마가와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 한민족이 서로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며

59) 독일과 예멘, 베트남이 통일했지만 아직도 세계에는 아일랜드-북아일랜드(종교문제), 키프로스-북키프로스(민족-정치문제), 중국-타이완(이념문제), 남-북한(이념문제) 등 4개의 분단국가들이 남아있다.

서로를 향해 다가가야 하는지 교훈을 남겨준다. 분단 70년을 맞이한 오늘, 분단 이전 세대들이 이제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가는 오늘, 과연 통일이라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한민족이 살 수 있는 희망은 남북한의 통일에서 찾을 수밖에 없고, 이 사회에서 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진대, 한국의 기독교가 더욱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추방, 연해주 고려인, 사할린 한인, 한반도통일, 한국근대사, 마가복음, 로마서

<Key Word>

Exile, Russian-Korean Diaspora, Reunification of Korea, Modern Korean history, Mark's Gospel, Romans

* 접수일 2015년 8월 28일, 수정일 2015년 9월 16일, 게재 확정일 2015년 9월 27일

참고문헌

- 김득중, “과부의 현금: ‘칭찬’인가 ‘경고’인가?,” 『신학논단』 43 (2006), 321-334.
- 김영인, “마가복음의 결말과 종결의 GAR,” 『성경원문연구』 27 (2010), 56-70.
- 김형동, “복음서에 나타난 지혜전승과 그 함의성,” 『신약논단』 20:1 (2013), 1-31.
- 나형욱,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 정착실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국내학술회의』 (2009. 12), 109-137.
- 민준홍, “로마제국의 경제적 통치방식과 마가공동체의 정황,” 『신약논단』 21:1 (2014), 59-90.
- 박수암, “마가의 이적 이해,” 『장신논단』 16 (2000), 110-132.
- 반병률, “한국인의 러시아 이주사: 연해주로의 유랑과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 『한국사 시민강좌』 28:2 (2001), 65-89.
- _____, “러시아 한인(고려인) 사회와 정체성의 변화,” 『한국사연구』 140 (2008), 99-124.
- 서용원, “마가복음의 배경에 대한 역사적, 문학적 연구,” 『신약논단』 9:1 (2002), 1-38.
- _____, “마가복음의 기독교적 구조에 나타난 공동체의 생존 모티브,” 『신학논단』 43 (2006), 335-351.
- _____, “마가복음 13장에 나타난 때와 제자직,” 『신약논단』 5 (1999), 179-204.
- _____, 『마가복음과 생존의 수사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서중석, 『복음서의 예수와 공동체의 형태』, 서울: 이레서원, 2007.
- 심현용, “고려인 강제이주의 역사,” 『고려인 강제이주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한국현대문화학회, 2007. 6), 24-32.
- _____, “강제이주의 발생 메카니즘과 민족관계의 특성 연구: 소련 강제이주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39:3 (1999), 197-218.
- 양재훈, “마가복음의 끝은 진정 끝났는가?: 마가복음 끝 연구에 대한 새로운

- 방향, 「협성신학논단」 7 (2005), 78-96.
- 왕대일, “해방과 추방, 구약 신학적 검토,” 「Canon&Culture」 9:1 (2015), 5-34.
- 유태엽, “마가의 결말(16:8)의 진정성과 의미에 대한 고찰,” 「신학과세계」 70 (2011), 60-95.
- _____, “마가공동체의 삶의 정황에 대한 물음,” 「신학과세계」 77 (2013), 32-64.
- 윤병석, “소비에트 건설기의 고려인 수난과 강제이주,” 「중앙사론」 21 (2005), 572-594.
- 이광규,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서울: 집문당, 1998.
- 이재혁, “일제강점기 사할린의 한국인 이주,” 「한국시베리아 연구」 15:1 (2011), 85-135.
- 이채문,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이주민의 직업에 대한 연구: 비농업직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3:2 (2000), 39-77.
- 이채문, 박규택,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러시아 극동 지역 귀환 이주,” 「한국 지역지리학회지」 9:4 (2003), 559-575.
- 이한수, “로마교회의 상황과 로마서의 저술목적,” 「신학지남」 294 (2008), 61-82.
- 이형근, “고려인 디아스포라와 선교,” 「선교와 신학」 16 (2011), 95-147.
- 임채완,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의 민족정체성 조사연구,” 「통일문제연구」 38 (2002), 175-210.
- 장석홍, “사할린 지역 한인 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 43 (2007), 210-275.
- 진신욱, “연해주 한인의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와 정착 그리고 사회. 경제적 현황,” 「통일문제연구」 47 (2007), 207-246.
- 정승우, “로마서 9-11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구원문제와 로마교회의 사회적 정황,” 「신약논단」 12:1 (2005), 39-66.
- 정진아, “고려인. 사할린 한인과 한국인의 역사연대와 문화통합,” 「통일인문학」 61 (2015), 235-261.
- 최갑중, “바울의 예루살렘, 로마, 그리고 서바나(스페인) 방문의 상호연관성과 그 의의,” 「신약논단」 20:2 (2013), 409-442.

- 최승수, “사할린 억류한인의 국적귀속과 법적 체 문제,” 『한국근현대사연구』 37 (2006), 35-60.
- Boomershine, T. E., “Mark 16:8 and the Apostolic Commission,” *JBL* 100:2 (1981), 225-239.
- Crossan, J. D., “Empty Tomb and Absent Lord (Mark 16.1-8),” W.H. Kelber, ed., *The Passion in Mark: Studies on Mark 14-16*,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6, 135-152.
- _____, “Mark and the Relatives of Jesus,” *NovT* 15 (1973), 81-113.
- Dunn, J. D. G., 『로마서 1-8』, 김철, 채천석 역, WBC 38상; 서울: 솔로몬, 2003.
- van Iersel, B. M. F., “Failed Followers in Mark: Mark 13:12 as a Key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Intended Readers,” *CBQ* 58 (1996), 244-263.
- _____,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rk - written for a persecuted community?,” *NedTTs* 34 (1980), 15-36.
- Jervell, J., “The Letter to Jerusalem,” K.P. Donfried, ed., *The Romans Debate*, Edinburgh: T.&T. Clark, 1991, 53-64.
- Jewett, R., *Romans: A Commentary on the Book of Romans*, Hermeneia Commentary CD-Rom;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 Kelber, W. H., *The Kingdom in Mark: A New Place and a New Tim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4.
- Malbon, E. S., “Fallible Followers: women and men in the Gospel of Mark,” *Semeia* 28 (1983), 29-48.
- _____, “Disciples/Crowds/Whoever: Markan Characterization and Readers,” *NovT* 28:2 (1986), 104-130.
- Radcliffe, T.,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Mark’s Gospel and the subversion of ‘the apocalyptic imagination,’” B. Davies OP., ed., *Language, Meaning and God: Essay in honour of Herbert McCabe OP.*, London: Geoffrey Chapman, 1987, 178-189.
- Tolbert, M. A., “Mark,” C.A. Newsom and S.H. Ringe, eds., *The Women’s Commentary*, Louisville: W/JKP, 1992, 263-274.
- Tyson, J. B., “The Blindness of the Disciples in Mark,” *JBL* 80 (1961), 261-268.

Weeden, T. J., *Mark: Traditions in Conflic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1.

_____, "The Heresy That Necessitated Mark's Gospel," *ZNW* 59 (1968),
145-158.

<초록>

마가와 바울의 눈으로 보는 추방, 해방과 분단 70년

양재훈
(협성대, 신약학)

이 논문은 한민족 해방과 분단 7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들의 추방과 귀환에 얽힌 어두운 역사를 성서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한민족의 미래를 조망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우선 연해주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의 역사를 살펴본다. 러시아 한인 디아스포라의 추방의 역사는 타인의 힘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것은 결국 한민족 간의 내부적 반목과 갈등과 분열을 낳았다. 이들의 역사는 마가공동체와 로마교회의 상황과 유비적인 관계에 놓인다. 마가공동체는 외부 세력에 의해 주어진 박해의 상황으로 인해 형제를 배신해야만 했던 상처를 안고 있었다. 로마교회 역시 로마 권력에 의해 추방의 아픔을 겪어야 했고, 그 추방으로 인해 로마교회 형제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의 아픔을 경험했다. 이 논문은 마가와 바울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각자의 공동체들의 상처를 보듬고 문제를 극복하는지 살펴본 후, 외세에 의해 남과 북으로 분열된 한민족의 오늘날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미래를 꿈꿀 것인지 제시한다.

<Abstract>

70 Years of Exile, Liberation and Division of Korea from Mark and Paul's Eyes

Prof. Jayhoon Yang
(Hyupsung University)

This article attempts to look back on the shadowy memories of exile and return of the Russian-Korean diaspora in the Maritime Province and Sakhalin Island, while looking forw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rom a biblical perspective on the occas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Korean Liberation and Division. The tragedy of Russian-Korean diaspora's history of exile was caused by the coercive imperialistic powers surrounding the Joseon Dynasty, the Korean Empire, and the Korea under the rule of Imperial Japan. It has resulted in sharp cleavages among the Russian-Korean diaspora groups which were marred by scars in the process. This article finds an analogy between the history of Russian-Korean diaspora and Mark's Gospel and the book of Romans. The Markan community and the Roman Christians had a similar experience of exile and the conflict among the community members. This article examines how Mark and Paul restored the broken community, and what insights we may gain from it for the future of the divided Korean Peninsula.